



보도 일시	(지 면) 2.27.(월) 조간 (인터넷) 2.26.(일) 12:00	-
-------	---	---

담당 부서	창업정책관 기술창업과	책임자	과 장	강신천 (044-204-76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인 (044-204-7645)
			주무관	최동영 (044-204-7652)

## 팁스(TIPS)로의 첫걸음, 프리팁스(Pre-TIPS)로 시작하세요!

### - 프리팁스(Pre-TIPS) 참여기업 모집 (2.27~3.24) -

- 전년보다 약 40% 확대된 43개사 지원, 이중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60% 이상을 배정하여 지역 창업기업 참여기회 확대
- 프리팁스(Pre-TIPS) 참여가 팁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‘프리팁스 아이알(IR)’, ‘프리팁스 만남의날(밋업데이)’ 등 팁스 연계 투자유치·교류(네트워킹) 프로그램 강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‘2023년 프리팁스(Pre-TIPS) 프로그램’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, 민간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\*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.

\* 투자자 :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사(벤처캐피털)(VC) 등 팁스 운영사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기관 및 개인투자조합

2018년에 시작한 프리팁스는 2021년까지 총 132개사를 지원하였으며, 신규 고용 470명, 국내·외 신규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.

특히, 프리팁스는 매년 지원규모의 60%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배정하여 2022년까지 100여개사의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·지원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.

올해에는 43개사의 프리팁스 기업을 선발·지원할 계획으로, 모집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창업기업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.

한편, 현재 프리팁스와 팁스 간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팁스 참여기업이 팁스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, 팁스 참여 전제조건인 ‘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’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.

올해는 팁스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, 지역 팁스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인 ‘팁스 살롱’에 ‘프리팁스 아이알(IR)’을 신설하고, 프리팁스 기업과 우수 팁스기업 및 팁스운영사 간 교류(네트워킹)을 지원하는 ‘프리팁스 만남의날(밋업데이)’도 개최할 예정이다.

이영 장관은 “프리팁스는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팁스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”라며,

“프리팁스를 바탕으로 향후 팁스·포스트팁스까지 연계해 세계적(글로벌) 거대신생기업(유니콘 기업)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프리팁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‘케이(K)-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’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3월 24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


사업내용
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발굴하여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, 엔젤투자를 촉진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

 지원규모 : 43억원, 43개사 내외

- 지원규모의 60%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선정

 지원요건

- 투자자\*로부터 엔젤투자를 1천만원 이상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

\* 팁스 운영사 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, 창업기획자, 개인투자조합 등

 지원내용

-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, 10개월)을 매칭 지원

 지원성과

- '18~'21년 총 132개사를 지원하여 매출 385억원, 신규고용 470명, 국내·외 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 달성('22.12월 기준)

\* '22년도 지원기업(30개사)의 경우 현재 사업 진행 중

 추진일정(안)

- 1차 모집공고(2.27~3.24) → 2차 모집공고(6.1~6.29) → 3차 모집공고(9.1~9.28)

\* 접수, 평가,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